

로맨틱
街道

김윤기

사람은 꿈을 꾸며 산다. 꿈은 인간에게 무한한 생의 즐거움과 의욕을 준다. 만약 사람에게 꿈이 없었다면 나무나 풀이 없는 사막처럼 삭막한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여행은 어쩌면 꿈을 찾아 해매는 행로일런지도 모른다. 꿈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에게 이 꿈을 꾸게 하는 여행길이 있다. 독일의 남부 산악지대를 누비면서 내려오는 길, 볼츠부르크(Würzburg)에서 뉘른(Füssen)까지 이어지는 약 350킬로의 도로가 이른바 '로맨틱 街道'로 불리우는 꿈의 여로다.

이 도로에는 로텐부르그, 너르딩겐, 아우그스부르그 등 중세의 도시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종착지 부근엔 호수와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노이슈방슈타인城이 있다.

이 도로에는 11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중세풍의 건축물들이 줄을 잇고 있다. 고성, 궁전, 사원, 성관(城館), 목조의 주택 등이 장난감처럼 모여 있는 것이 마치 그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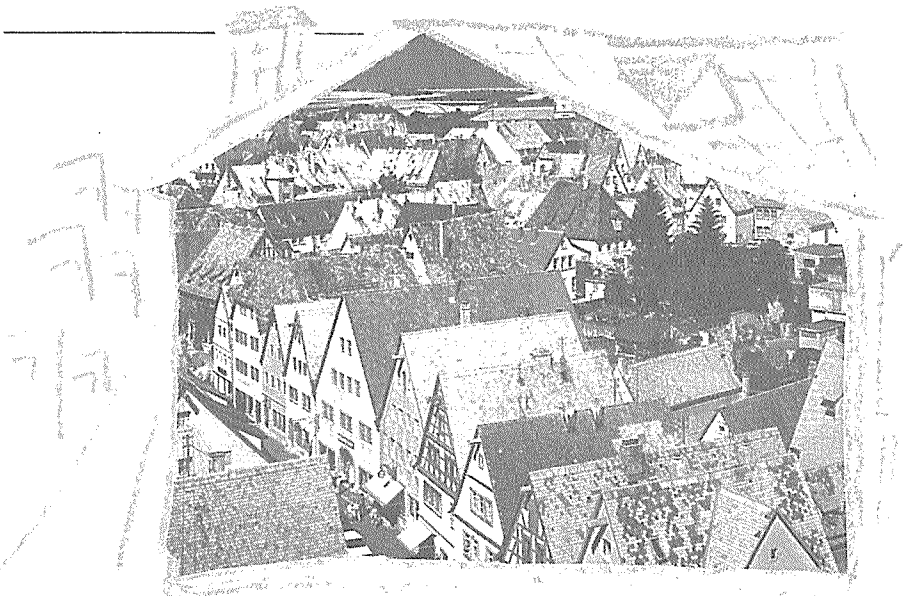
그런가하면 포도밭과 목장이 산기슭에 펼쳐져 있고, 고개를 조금 높이 들고 멀리 보면 시커먼 숲이 아련히 시야를 가린다. 이 길을 달리다 보면, 돌연 중세시대로 역류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살아있는 중세 민속촌

로맨틱 街道란 이름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독일 관광국에서 지은 이름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관광상품명이다. 「로맨틱」이라면 한국사람은 사랑을 연상하지만 독일사람은 중세시대대의 동경, 또는 꿈을 연상한다.

로맨틱 街道는 사랑의 길이 아니라 옛날의 분위기를 찾는 꿈의 길이란 뜻으로 해석함이 원외에 가깝다.

로맨틱 街道의 픽 씨즌은 5월부터 10월까지다. 알프스의 산기슭은 겨울에는 길이 얼



↑ 로텐부르크의 전통적 가옥의 붉은 기와지붕. 이런 풍경은 이곳에서만 볼수 있다.

어 통행에도 불편하고 또 춥다.

서울에서 로맨틱 街道를 가려면 먼저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기차를 타고 뷔스바덴이나 볼츠부르크로 가야한다. 로맨틱 街道線 버스가 이곳에서 시발하기 때문이다. 로맨틱 街道線 버스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뷔스바덴↔문헨間, 또 하나는 볼츠부르크↔풋센間을 운행한다.

소요시간은 문헨線이 13시간, 풋센線이 12시간반이다. (별표참조) 문헨線은 3월중순부터 10월말까지, 풋센線은 5월말부터 10월초까지만 운행한다. 요금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문헨까지는 80마르크, 풋센까지는 90마르크다. (89년도 요금)

이 버스는 큰 정거장에선 꽤 오래 선다. 로텐부르크 같은 곳에서 2시간이상, 딩켈스불 같은 곳에서 1시간이나 선다. 그동안 내려서 구경도 하고, 점심을 먹고 타라는 뜻

이다. 어느 정거장에서나 마음대로 내렸다 타도 된다. 하루 자고 다음날 타도 표는 유효하다.

이 버스가 로맨틱 街道를 달리는 시간은 약 12~13시간이다. 아침에 출발, 해질녘에 도착한다. 하루면 바쁜 사람은 로맨틱 街道를 모두 구경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즐기면서 보려면 1박 또는 2박쯤 중간에서 자는 것이 좋다.

이 버스는 예약이 필요없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 버스회사로 한번쯤 전화로 사정을 알아볼 필요는 있다. (Deutsche Touring GmbH/Am Romerhof 17, 6000 Frankfurt am Main 90/전화 069-7903256)

이 버스는 철도승차권을 가지고도 탈수 있다. 유레일패스, 유레일유스패스, DB투어리스트카드도 통용된다. 버스안에는 예쁜 스텐더디스 한명이 동승, 손님의 시중을 들면서 여행지에 대한 안내를 해 준다.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렌트카

유럽 버스 로맨틱 街道線 시간표

롯데線	문헨線		문헨線	롯데線
	7:50	Wiesbaden 중앙역	20:40	
	8:15	Frankfurt 중앙역 (남쪽)	19:55	
9:00	10:15	Würzburg 중앙역	18:10	19:20
12:00	11:35着		發17:00	17:00
13:00	13:45發	Rothenburg	着15:15	15:35
14:30	14:45着		發14:15	14:40
15:00	15:30發	Dinkelsbühl	着12:35	13:10
15:25	16:05	Nordlingen	11:55	12:30
17:05	17:40	Augsburg 중앙역	10:20	11:10
	18:55	München 중앙역 (슈타른베르그쪽)	9:00	↑
18:15		Landsberg		發9:15
↓		Wies교회		着8:50
19:25		Schwangau 관광국		8:25
19:30		Hohenschwangau		8:20
19:35		Füssen역		8:15

수 밖에 없다.

여행정보-숙소문제

호텔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큰 호텔은 별(☆)로 그 수준이 구분된다. 별4개가 최고급이다. 로텐부르크에는 딜릭스급 호텔은 1인1박 요금이 100~180마르크다.

그러나 로맨틱 街道 여행에는 고급호텔보다 중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중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르니(Hotel Garni)는 아침식사만 제공하는 간이호텔이며, 가스트호프(Gasthof)는 1층은 레스토랑, 2층에 방이 있는 호텔이다. 서부활극에서 흔히 보는 살롱을 연상케하는 구조의 숙소다. 가스트호프는 하루 50~70마르크로 호텔의 반값도 안된다.

펜지온(Pension)도 있다. 값이 가장 싼 숙소로, 일종의 서양여인숙이다. 하루 숙박료는 25~40마르크밖에 안되는데, 이 안에 아침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

가정적인 분위기를 찾는 사람에겐 민박(Privatzimmer)을 권하고 싶다. 방이 한두개 뿐이어서 주인과 손님이 한데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기쁨이 있다.

젊은이들의 숙소로는 유스호스텔(Jugendherberge)이 있다. 1박요금이 10~12마르크로 아주 싸다.

숙소를 구하기는 아주 쉽다. 어느 도시 어느 마을엘 가도, 그 한복판에는 꼭 관광안내소(Information)가 있다. 이곳에 가면 호텔에서부터 민박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대로 즉석에서 예약을 해 준다.

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독일은 도로 사정도 좋고 안내표지판도 완벽하여 지도책만 해득하면 길 찾는데는 어려움이 없다.

1주일간 거리 무제한 뺑요금은 350~400마르크(폭스바겐골드 수준)다. 1마르크가 약 400원이므로, 약 15~18만원밖에 안된다. 로맨틱 街道는 시속 100킬로까지 가능하다. 시내에선 50킬로로 제한되어 있다.

로맨틱 街道는 기차로는 구경하기 어렵다. 철도가 없기 때문이다.

큰 도시 몇곳에는 기차길이 있다. 볼츠부르크, 아우그스부르크, 로텐부르크는 기차로 갈수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도시들은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야 한다. 버스가 안다니는 겨울철에는 하는 수 없이 기차를 탈

로맨틱 街道의 도시들

(볼츠부르크) 1천년의 역사를 가진 이 도시는 로맨틱 街道의 시발지이다. 마인江에 걸린 다리를 가운데 두고, 건너편 언덕에 영주가 살던 화려한 마리엔베르그城이 있고, 강 이쪽에는 시가지가 펼쳐져 있다.

시내에는 이 마을의 수호신, 킬리안 대성당이 성벽처럼 우뚝 서 있고, 6천명을 수용하는 큰 비어홀도 있다.

성관(城館)안에는 「황제의 마루」에 베네치아의 화가 티에폴로가 그린 천정화와, 독일 바로크 조각예술의 거장 리멘슈나이더의 상(像)과 분수가 있는데 그 호화롭고 정교한 아름다운 예술성은 독일에서도 손꼽아 준다. 16세기에 세워진 볼츠부르크대학은 X선의 발견자 렌트겐을 배출한 명문이다.



↑ 로맨틱 街道의 시발지 볼츠부르크의 거리 풍경. 중세의 어느 마을에 온 느낌을 준다.

다.

(타우버비숍스하임) 인구 360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1년에 5백만릿터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큰 양조장과 포도밭이 있는 전원 마을이다. 옛날 영주가 살던 집은 향토박물관이 되어 있다.

(바트 멜겐트하임) 중세의 독일 기사단(騎士團)이 만든 마을로, 16세기에 세워진 성이 있다.

(바이커스하임) 18세기에 완성된 호엔로에城이 있다. 폭12, 깊이39, 높이9미터의 거대한 「기사의 마루」가 볼 만하다.

(크레글링겐) 작은 마을이나, 헬고트교회 안에 리멘슈나이더의 최고 걸작이라는 목각제단이 있다.

높이 11미터의 이 제단은 중앙에는 마리아 승천과 그것을 지켜보는 천사와 12사도가 있고, 아랫쪽에는 예수와 신학논쟁을 벌이고 있는 학자1명이 있는데, 이 학자가 리멘슈나이더 자신이라고 한다.

(로텐부르크) 로맨틱 街道의 최고 명소 도시다. 중세의 풍물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마치 포도주 술잔을 닦은 성벽은, 한바퀴 도는데 걸어서 1시간쯤 걸리는 작은 성이지만 이상하게도 3백년 걸려 쌓았다. 때문인가, 12세기때의 성벽이 지금까지 거의 원형대로 남아 있다.

르네상스, 바로크, 고딕식을 혼합하여 건립한 시청 옥탑에 오르면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인형시계는 매일 11시, 시계 양쪽의 창문이 열리면서 왼쪽에는 장군, 오른쪽에는 시장이 나타나,

장군은 나팔을 불고 시장은 커다란 술잔을 마시는 시늉을 한다.

「마이스타 트르크」(술마시는 시장)이란 이름의 인형시계 쇼는 1631년 로텐베르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당시 시장이 큰 술잔의 술을 단숨에 마시는 용기를 보여주어 도시를 구원했던 고사를 간직하고 있다.

인구 1만2천의 작은 도시에 르네상스풍의 붉은 기와집들과 수없이 많이 솟은 뾰족탑, 기하학적 모양의 돌길들이 깔려, 독일의 민속촌을 보는 것 같다.

옛날에는 성문이 일정한 시간에 닫혔다. 적이 쳐들어 올 때는 성문을 닫고 성을 지켰는데 물의 확보가 큰 문제가 되었다. 성벽 위에 있는 망루(望樓)가 이 물탱크이기도 했는데 이곳으로 성밖의 물을 끌어 오는 비밀 수로(水路)가 있다.

로텐베르크에는 재미있는 박물관이 2개 있다. 「중세범죄박물관」과 「인형과 장난감 박물관」이다. 범죄 박물관에는 마녀의 의자,

치욕의 얼굴등 중세시대의 죄악상을 모아 놓았고, 인형박물관에는 장난감 집, 철도, 학교, 마차 등의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로텐베르크는 도시전체가 중세박물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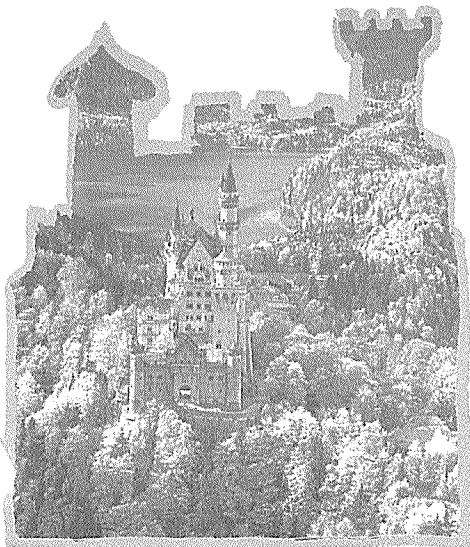
〔딩켈스블〕 19개의 탑문을 가진 성벽 밖쪽에서 강물을 끌어들여 연못과 도장을 만들었다. 물위에 비치는 성벽과 성문은 그림처럼 아름답다.

옛부터 곡물집산지였던 이 도시인구는 약 8천5백명, 중세의 집들이 상처없이 남아 있다.

〔뇌르들링겐〕 진주처럼 동그런 성벽속에 갇힌 도시다. 90미터의 다니엘탑이 도시 한 가운데 서 있다.

로텐부르크 시청 영빈관
정면의 시계가 일정한
시각을 알리면 양쪽 창문
이 열리고, 나팔을 부는
장군과 술을 마시는
백발의 시장이 나타난다.





↑ 추색이 깃든 신비의 城 노이슈방슈타인. 루드비히2세의 비련의 로맨스가 숨겨져 있다.

〔할부르크〕 한번도 함락된 일이 없다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 성내의 우물은 깊이가 128미터나 된다.

〔아우그스부르크〕 2천년전 로마인에 의해 건립된 독일 最古의 도시. 시청앞 광장에 로마황제 아우구스트像과 분수가 있다.

중세 때는 금융 상업도시로 발전하여 「황금의 아우구스부르크」로도 불리웠다. 모찰트의 부친 레오폴드, 디젤엔진이 발명자 디젤도 이 도시 출신이다.

시청 동쪽에 「훗게라이」라고 불리우는 길다란 2층집이 있는데 1519년 훗거家가 세운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복지시설이다. 지금도 집세가 1년에 1.72마르크 밖에 안되며, 350명의 입주자가 살고 있다.

〔란드스베르크〕 중앙 광장이 이상하게도 삼각형이다. 광장 한복판에 마리아상과 분수가 있고, 13세기때 세운 슈마르크門이 門구실을 한다.

〔송기우〕 성직자의 마을이다. 마리아승천교회와 성미카엘교회등 도시 규모에 비해 큰 교회들이 많다. 중세 때의 화폐제조공장, 곡물창고등이 아직 남아 있다.

〔슈방가우〕 호수와 숲으로 둘러 싸인 신비의 성 노이슈방슈타인이 있다. 루드비히2세가 광적인 열성을 도하여 지은 성이다.

앞에는 언제나 안개에 묻혀있는 알프호가 있고, 수면 위에는 백조들이 놀고 있어 「백조의 성」이란 별명도 있다.

1869년, 17년 걸려 완성된 이 성에서 정작 루드비히2세는 102일간 살고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그는 오스트리아 왕비가 된 엘리자벳트를 몹시 사랑했는데 『國王은 로맨티즘에 빠지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그녀의 동생 소피아와 결혼할 것을 권했다. 루드비히2세의 죽음은 비련의 로맨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노이슈방슈타인성 건너에 또하나의 아름다운 크림색의 궁전 호엔슈방가우가 있다. 이 성은 루드비히의 父王 맥시밀리안2세가 거주하던 곳으로 루드비히는 이곳에서 자랐다.

〔푼센〕 푼센은 로맨틱 街道의 총창지며, 독일에서 가장 높은 곳(해발 800m)에 있는 도시다. 태고적엔 알프스 빙하의 퇴적지였다는 푼센은 사람이 백설로 뒤덮인 알프스로 둘러쌓여 있다. 마을 어귀로 흐르는 렛히江은 알프스의 눈이 녹아내리는 물이다. 서쪽 언덕에 있는 호에스城은 아우구스부르크 대사교의 여름 별궁이었다.

〈필자 = 해외의학 교류회장 · 최신 여행 정보 발행인〉